

## 누마노타이라 분화구

누마노타이라 분화구는 약 2500년 전 반다이산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반다이산은 균형 잡힌 모양을 지닌 화산이었지만 산 정상에 산체 붕괴해 폭 1.2km, 깊이 350m의 분화구를 형성했습니다. 이 산체 붕괴 후 분화구는 오반다이(해발 1,816m), 구시가미네(해발 1,636m), 아카하니야마(해발 1,430m), 고반다이(해발 1,800m)라는 4개의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8년의 두 번째 대분화로 인해 고반다이가 산체 붕괴해 암설이 반다이산의 북쪽 산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고시키누마 호소군이 형성된 것입니다. 현재 화구벽을 구성하는 것은 3개의 봉우리뿐입니다. 1888년의 분화는 화구벽에 분기공이라 불리는 화산 가스를 분출하는 수많은 구멍도 생기게 했습니다.